

## 전략적 관점에서 본 영화 <13days>

국방정보공학과 2학년 2020032306 송민경

처음 영화를 보기 시작하였을 때, 2000년대에 제작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화질과 표현에 놀랐다. 덕분에 말이나 글로만 듣고 읽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를 당시의 상황에 직접 들어가 실제로 경험하는 듯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특별한 각색 없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보는 내내 흥미롭게 감상하였다.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중요사건인 쿠바 미사일 사태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부터 비롯된 13일간 미국과 소련 간의 대결로 1962년 10월에 발생한 국제 핵전쟁 위기 사태이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자, 미국이 해상 봉쇄로 맞서게 된다. 결국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으나, 자칫하면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뻔한,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던 상황으로 기억되고 있다.

영화 초반부, 쿠바 상공을 정찰하던 미국 정찰기가 쿠바에서 이상한 점을 목격한다. 그것이 소련제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긴급회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바로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과 '공격을 통한 대응'이다. 그러던 중, '쿠바 봉쇄'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고, 케네디는 중대 결정을 해야만 했다.

'공격을 통한 대응'을 선택한다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쿠바 봉쇄'를 선택한다고 해도 소련 측에서 언제 어디서 미국을 공격해올지 모르며,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계속된 회의 속 케네디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평화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 점이였다. 자칫하면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의 주장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임을 외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 케네디가 다른 선택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국가적 중대 결정에 있어 지도자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정찰기를 통해 쿠바의 미사일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 또한 인상적이었다. 영화 감상 전, 흔히 ‘전략적 측면’ 하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작전 및 전술을 짜는 일만 떠올렸다. 그러나 정찰기를 통한 정보의 습득으로 미사일 사태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자국의 군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주변 정찰을 통한 적의 움직임과 그 외 정보들의 수집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후 전쟁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여긴 미국은 ‘쿠바 봉쇄’ 계획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정찰기 한 대가 쿠바 상공에서 격추되자, 소련이 먼저 도발을 하기 전 선제 공습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케네디는 이런 건의들을 묵살하고 소련과 최후의 협상을 시도했다.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평화적으로 해결할지,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태도를 유지할지가 소련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소련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 전날 밤, ‘만약 내일도 태양이 뜬다면, 그것은 선한 이들의 의지 덕분이겠지.’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긴장되는 상황 속 공감이 되는 대사여서인지 큰 울림을 주었다.

결국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13일간의 핵전쟁 위기가 무사히 해소되었다. 이 사태는 미국과 소련 양국의 지도자 간 대화의 길을 열었으며, 대립을 완화 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기를 직접 실감하게 되면서 반핵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영화를 통해 ‘쿠바 미사일 사태’의 과정과 이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만약 내가 케네디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만약 저 상황으로 인해 소집된 긴급회의에 내가 있었다라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었을까?’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는 내내, 마치 직접 실제 상황을 겪는 것처럼 감상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긴장감과 공포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위기관리와 국가안보에 대한 많은 생각을 제공한 감명 깊은 영화로 기억될 것 같다.

영화 <13days>는 나에게 있어, 국제정치 및 외교에 있어 정치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많은 교훈을 안겨준 영화였다. 중대 결정의 기로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전쟁을 막는 데에 크게 기여한 영화 속 케네디의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